

장흥 사계절 축제... 지역경제·관광인프라 살린다

■ 2014 장흥군 축제(행사) 현황

축제(행사명)	개최시기
제9회 정남진장흥 전국미리톤대회	3월23일
제12회 정남진장흥 키조개 축제	5월2~6일
제24회 제암산 철쭉제	5월11일
2014 개막이 체험행사	7~8월(2회)
제7회 장남진장흥 물축제	8월1~7일
제19회 전국바다뉴스대회 및 전어축제	10월3~5일
제21회 천관산 역사제	10월5일
201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10월23~29일
제16회 전국 가무악제전	11월1~2일



올해도 '정남진 장흥 물축제' 등 9개 행사 개최

군, 풍부한 지역 특산물·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장흥군이 지역 특성과 특산물, 문화를 살려 개발한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비롯한 사계절 축제를 개최해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활성화를 꾀한다.

장흥군은 최근 축제발전 위원회를 열고 올해 개최되는 '정남진 물축제'를 비롯한 9개의 축제성 행사에 대한 심의·의결했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제9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키조개 축제, 제암산 철쭉제, 개막이 체험행사, 물축제, 바다뉴스대회·전어축제, 천관산 역사제, 통합의학 박람회, 가무악제전 등 모두 9개 축제가 연중 잇따라 개최된다.

올해로 12회째 맞는 '키조개 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안양면 수문항 방파제에서 열린다. 청정해

역인 득량만에서 잡은 키조개를 주제로 삼합(소고기, 표고버섯, 키조개) 시식 등 다채로운 이벤트행사가 열린다.

이어 5월 11일에는 제암산 능선 철쭉군락지에서 24회째 철쭉제가 열리고,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바닷길이 갈라지는 대덕면 신리 앞바다에서 개막이 체험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문화관광부로부터 이미 전국 대표축제로 선정돼 날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제7회 정남진 물축제'가 탐진강변에서 8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뗏목타기 등 다양한 물 관련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 밖에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회진면 앞바다에서 '제19회 전국 바다뉴스대회 및 전어축제'가 열린다.

10월 5일에는 장흥산악회가 주관하는 제21회 천관산 역사제가 예정돼 있다. 11월 1~2일 이틀간 제 16회 전국 가무악제전이 가무악제전 추진위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승중 장흥군 부군수는 "장흥은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적 여건을 갖춰 축제에 대한 관광 인프라와 생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 백련사 동백숲.

담양군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쇄도 한달 5~6건씩 줄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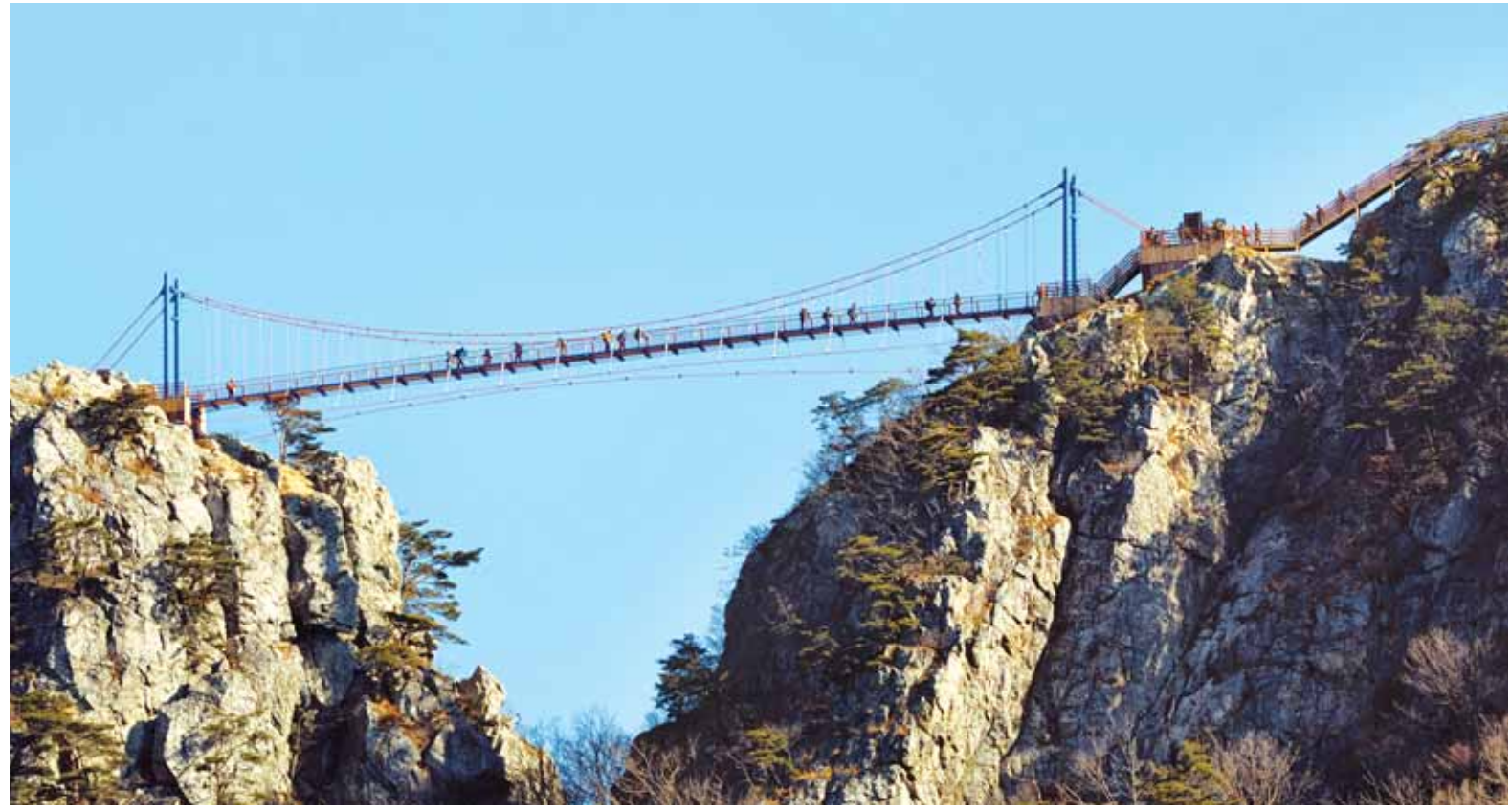
담양군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죽녹원 자전거연합회와 백전동우회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매일 5~6건의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죽녹원 자전거연합회(회장 우영석)는 최근 군을 방문해 실시일반 모은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과 관방제림 주변에서 자전거 대어 사업을 하는 영세 상인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지난해에도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또한 백전 동우회(회장 김성환)도 지역인재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군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



아찔한 화순 백아산 하늘다리

지난해 12월 완공된 화순군 백아산(해발 810m) 하늘다리가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화순의 새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화순군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마당바위와 절터바위를 연결하는 현수교량(길이 66m×폭 1.2m)을 설치했다.

<화순군 제공>

전북

고창 출신 4인 등 한국유림 대표가 쓴 일제강점기 독립 호소 비밀 서한 기려 '파리장서' 기념비 세운다

29일 고창 새마을공원 제막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문명의 나라로, 스스로 정치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일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일본의 포악 무도한 통치를 참을 수 없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처지를 만국에 알린다. 우리는 차라리 자진해 죽을지언정 맹세코 일본의 노예는 되지 않겠다..."

1919년 3월 말 유림(儒林)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서한을 비밀리에 보낸다. 2674자에 이르는 장문의 한문체로 쓰인 이 서한은 '한국유림 파리장서'(巴里長書)로 불리며, 제2의 독립선언서로 평가된다. 이 운동에는 고창출신 고석진·고예진·고순진·고재만 선생 등 전국 유림 대표 137인이 서명했다.

일제 강점기 한국 유림의 독립운동과 고창출신 네 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기념비가 고창에 세워진다.

/고창=음형기기자 cy0370@



오는 29일 제막식을 갖는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 기념비.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29일 고창 새마을공원에서 학생과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 기념비' 제막식을 갖는다. 파리장서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 국내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비밀리에 보내졌다.

심산 김창숙 선생이 1919년 3월 23일 파리장서를 짚신으로 엮어서 비밀리에 휴대하고 국내를 떠났다. 이후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도착해 영·중·국어·불어·독어로 번역했으며 임정대표 김규식을 통해 파리 평화회의에서 배포됐다.

기념비 건립추진위 관계자는 "파리장서는 3·1 독립선언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고창의 자랑인 네 지사의 독립운동 활동을 널리 알릴 유림의 선비정신과 구국 정신을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밝혔다.



제5회 산수유꽃 축제가 오는 29~30일 이틀간 남원시 주천면 용봉리 외용궁 마을에서 열린다. <남원시 제공>

'수령 100년' 남원 산수유꽃 보러오세요

29~30일 주천면 봄꽃축제 풍물놀이·사진촬영 등 다채

제5회 산수유꽃 축제가 오는 29~30일 이틀간 남원시 주천면 용봉리 외용궁 마을에서 열린다. 용궁 산수유 군락지는 100년 이상 수령을 자랑한다. 이번 산수유꽃 축제는 기원제를 시작으로 풍물놀이, 산수유프린

지 페스티벌, 초청가수 한마당, 산수유 그림 그리기, 사진촬영 연출, 어린이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즉석 노래자랑과 산수유 나무심기, 산수유꽃 길·돌담길 걷기, 산수유 차·동동주 시음회, 도토리묵·떡·허브체험, 농·특산물 판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노인환 주천면장은 "마을 인근에 구룡계곡, 지리산 둘레길 제1코스, 백두대간 등산로 등과 연결된 관광지원이 즐비해 있다"며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수유는 풍광의 생리 기능 강화로 장기간 복용시 정력증강·이명 현상·원기부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순창 금과면 방축마을 리모델링 사업 착수

순창군이 금과면 방축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방축마을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국비 20억·지방비 18억·마을주민 자부담 26억원 등 총사업비 72

억원을 들여 ▲마을 기반시설 재정비 ▲마을내 가용토지 합리적 재배치 ▲슬레이트 철거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도입 ▲마을경관 형성 ▲공공어린이집 신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다산 학문·사상에 빠져보세요

강진군, 체험 프로그램 내달부터 본격 운영

다도·편지쓰기·짚신신기·힐링걷기 등 다양

강진군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문과 사상 등을 체험하는 다산(茶山) 체험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에 앞서 군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 산하 신규 공무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다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다산 유물전시관 탁본체험을 시작으로 다산초당에서 서당체험과 짚신체험, 천일각에서 그리운 이에게 편지쓰기 체험, 백련사에서 일담스님과 함께하는 다도체험과 백련사 및 동백림 문화해설을 병행해 진행한다.

사의제에서는 다산선생이 즐겨 먹던 아욱국 체험과 애민시 '애절양'(哀絶腸) 낭독, 문화해설이 진행된

다. 이후 백운동으로 이동해 강진다문과 사상 등을 체험하는 다산(茶山) 체험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다산 기념관은 다산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사진답사, 물품점검, 문화관광해설사 사전회의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체험비는 당일코스 4만원, 1박2일 코스 13만원으로 책정됐다.

박서진 다산 기념관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을 최종점검하고 체험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면서 "4월을 기점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등으로 다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061-430-3623) <강진=남철희기자 chou@

단신

군산해경, 경비함정 훈련 흑도 항해선박 주의 당부

군산 해양경찰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군산시 옥도면 흑도 반경 9km 해상에서 경비함정 사격 훈련을 한다며 근처를 항해하는 선박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훈련에 대해 해경은 해상에서의 각종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함정 해상 종합훈련'의 하나

라고 설명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훈련에는 함정 7척과 승조원 150여 명이 참여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인명구조, 화재대선 진화 등을 연습한다. /군산=백성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농기센터, 농업인 대상 '약용작물 교실' 운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 제2차 대강당에서 정읍 도라지연구회(회장 이호일) 회원을 비롯해 1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능성(약용)작물 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충북도 농업기술원 이희두씨를 강사로 초빙해 도라지

재배기술에 대해 중점 강의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중국산 도라지에 밀려났던 토종 도라지를 키워나가기 위해 정읍 도라지연구회와 함께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남원 대산면 '알뜰 나눔장터' 호응

남원시 대산면(면장 노병욱)은 지난 18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우리 동네 알뜰 나눔장터'를 운영,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의 근접점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열린 이날 나눔장터는 최소 100원부터 최고 1만원 물품까지 관

매해 성황을 이뤘다. 대산면 관계자는 "연간 4회(3. 6. 9. 12월 셋째 화요일) 알뜰 나눔 장터를 개설하겠다"며 "이번 나눔장터 운영 수익금 30만원을 전액 연할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순창 농촌 버 육묘용 상토 이달말 조기 공급

순창군이 고령화·부녀화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부담을 덜기 위해 버육묘용 상토를 이달 말까지 조기 공급한다.

순창군은 올해 지난해보다 7000만원이 늘어난 9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 상토(황토) 2891t ▲비료 ▲공장 상토 12만8000t ▲매트 11만1000장 ▲육묘 19만6000

장 ▲육묘상자 19만2000장을 공급한다. 또 소규모 육묘장 120동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상토는 1차 선별과정을 거쳐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공장용 상토와 매트는 70%, 육묘상자 구입비는 50%를 각각 지원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